한철연 2026 학술대회 기조발표
2026년12월5일

생태적 유물론과 실험적 형이상학

신유물론의 윤리학과 정치학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1절은 오늘 학술대회 전체 주제의 신유물론 일반을 추려낸 것이며,
2절부터 6절은 오늘 발표하는 5 주제를 미리 짚어 본 것이고,
마지막 7절은 나의 생각을 풀어낸 것이다.

1. 신유물론 일반

1.1 인간중심주의 탈피

① 인간이라는 주체적 동일성은 없으며, 존재는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② 인간도 비인간의 한 부분이다.
③ 인간예외주의, 소비주의적 물신주의(consumerist fetishism), 나르시시즘을 거부한다.

1.2 물질의 능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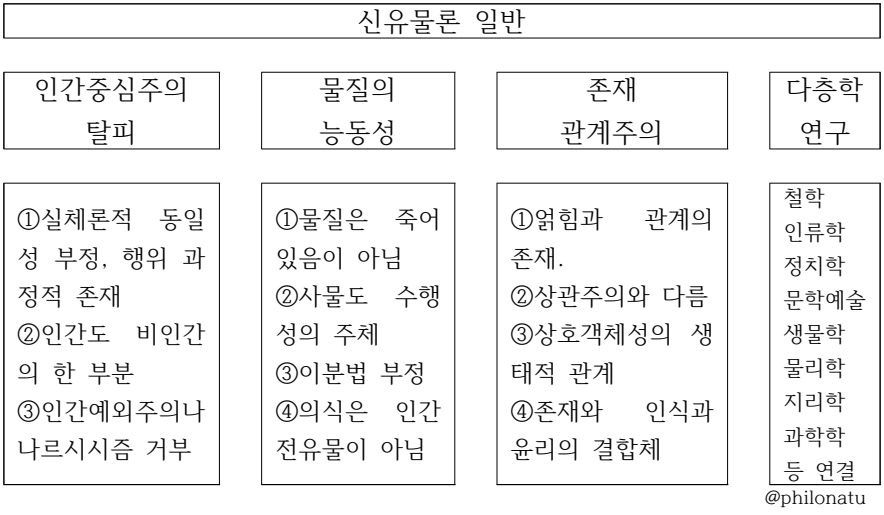
① 물질은 단순히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② 사물도 수행성의 주체로 될 수 있다.
③ 이분법 bifurcation of nature은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다.
④ 의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1.3 존재 관계주의relationism

① 세상의 존재는 서로에게 얽혀있거나 관계되어 있다.
② 관계중심을 보편적 “나”에게 두는 상관주의cor-relationism와 다르며,

인간의 개입없이 생성소멸하는 상호객체성의 생태적 관계론이다.
③ 존재와 인식과 윤리가 붙어있다.(버라드, 해러웨이, 라투르)

1.4 다학문 프로젝트 : 철학, 역사, 인류학, 정치학, 문학과 예술, 생물학과 물리학, 지리학, 과학기술학 등의 연합학문



2. ‘그저 있음’, 따듯한 향유와 차가운 익명

몸은 스스로 생존하지 않는다. 음식과 공기, 돌봄과 주거를 필요로 하고, 다른 생명체와 기술적 장치의 도움을 받는다. 개인의 자율성도 이러한 지원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 의존성은 일부 취약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누구나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속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을 인정할 때 윤리의 질문은 개인의 선택과 함께 삶의 기반을 향하게 된다. 삶의 기반이라는 생태적 환경을 말한다.

레비나스의 ‘요소적인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이 아니라, 공기와

빛, 땅과 바다처럼 몸을 감싸고 삶을 먹여 살리는 환경적 매질milieu을 말한다. 우리는 공기를 분석하기 전에 숨 쉬며, 빛을 자원으로 계산하기 전에 그 따뜻함을 향유한다. 요소적인 것이란 우리가 향유하지만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그 속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환경이다. 그런데 내가 향유하고 이용하는 범위 안에 포섭되지 않는 세계, 나의 존재와 필요에 무관한 세계가 여전히 남는데 레비나스는 이런 세계를 "그저 있음"(il y a)이라고 표현했다.

레비나스의 "그저 있음"은 생태적 세계를 잘 표현하는 듯한데, 생태는 "나" 혹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나는 거듭 강조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리는 음식과 거처, 따뜻함이 타자에게는 결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나의 생활방식이 다른 삶의 조건을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돌봄은 타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삶을 지탱하는 환경적 조건을 함께 보전하고 회복하는 실천이다. 세계로부터 살아가는 몸의 향유는, 세계를 독점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의 삶에 응답하는 돌봄으로 열려야 한다.

3. 버틀러의 물질화와 비체

버틀러에서 규범은 특정한 몸을 물질화materialization하면서 다른 몸과 가능성을 배제exclusion한다. 비체abject는 이 배제의 작용과 연결되며, 그 배제된 영역은 인정 가능한 주체를 성립시킨다는 의미에서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로 작동한다.

버틀러의 물질화 개념은 비물질적인 관념이 갑자기 물체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범과 실천의 반복을 통해 몸의 경계와 정체성, 정상성이 안정되는 과정을 말한다. 성별의 호명과 분류, 습관화된 태도아 몸가짐, 제도적 인정은 어떤 몸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몸으로 성립시키는 데 관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배제가 따른다는 점을 버틀러는 강하게 지적한다. 특정한 몸과 욕망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확립하는 규범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부적절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밀어낸다. 비체는 이러

한 배제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비체화된 몸은 실제로 살고 고통을 겪지만, 정당한 주체로 인정받을 자리를 얻기 어렵다. 비체를 낳은 배제된 존재는 질서와 무관한 절대적 외부에 있지 않다. 그 배제가 역설적으로 정상성의 경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성적 외부라는 말의 의미이다.

버틀러에서 물질화, 비체, 구성적 외부라는 개념은 그것에 안착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비체화를 구성하는 사회적 권력과 정치역학적 습관에 끊임없이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저항의 철학으로서 버틀러는 응답-능력의 실천적 감응력을 제시한다.

4. 얽힘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적 절단

버라드가 강조하는 "얽힘"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존재들이 나중에 연결되는 외재적 관계interaction와 전혀 다르다. 관계는 물질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의 발현은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독립된 개체들 사이의 외부적 끈맺기가 아니다.

버라드의 사례를 들어보자. 핵 폭력은 폭발 순간의 사건에 갇히지 않는다. 채굴과 연구, 식민지배와 군사제도, 피폭된 몸과 폐기물, 미래 세대의 생명가치들, 이 모두가 역사적으로 안에서부터 얽혀진 관계의 문제다. 버라드는 이런 관계를 "interaction"과 달리 "내부작용"intra-action이라고 표현했다. 버라드는 마셜제도에 관한 글에서 핵 식민주의와 기후위기의 교차를 다룬다. 반핵적 개입은 이 얽힘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폭력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를 배제해 온 배치를 바꾸려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전쟁과 실험, 피해 지역과 외부, 인간 피해와 환경 피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어야 한다. 실험이라는 이름이 실제 피해를 덜 보이게 하는지, 특정한 측정 범위가 장기적인 피해를 제외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계들은 이름만이 아니라 시설과 조사 방법, 보상 제도를 통해 실행된다. 어디에 경계를 지으냐에 따라 피해자가 얼마나 더 억울하게

되는지, 가해자는 교묘히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지 갈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계짓기를 버라드는 “행위적 절단(가름)”agential cut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으로 그치지 않으며 ‘생태’와 ‘세계’를 위협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며 우리들 삶의 자원을 재배분하는 정치적 응대이다.

5. 비인간과 인간의 만남 : 사변적 철학을 위하여

차머스의 〈Antworks〉는 얽힘의 관계를 감각적 장면에서 실험한다. 가위개미가 옮기는 잎 조각은 균류 재배의 기질이지만, 예술작품에서는 회화처럼 제시된다. 작가는 개미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면서도 예술의 언어와 무대를 겹친다. 이 장치는 개미가 인간과 같은 예술 의도를 가진다는 증거보다, 인간만이 예술적 주체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비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와 응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차머스는 이를 삼인칭 관찰에서 이인칭 상상으로의 확장이라고 말한다. 개미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는 데 더해, 너에게 이 잎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인칭 상상은 개미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확정하는 일이 아니다. 개미의 행동이 제작 계획과 해석을 바꾸게 하는 관계적 태도이다. 작가의 연출과 편집 권한은 여전히 남으므로, 협업이라는 말도 이러한 비대칭을 성찰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비대칭을 접근하기 위해 차머스는 철학자 샤비로의 사변철학을 적극 도입하는 듯하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현대적 계승자인 샤비로Steven Shaviro의 사변적 외삽은 관찰된 사실과 기존의 지식과 상식을 출발점으로 삼되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존재 방식과 가능성을 가설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비인간을 전적으로 알 수 없다고 닫아두지 않으면서,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6. 신체적 감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운동력으로서 생태 감정

생태계의 위기는 생물종의 감소에도 있지만 더 진짜 위기는 생태적 관계

망이 깨지고 있는 지금의 과정이다. 불행히도 “지금” 깨지는 위기의 현장을 느끼고 있지 못하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진짜 위기를 “생태감정의 상실”이라는 개념으로 대신한다. 필자 생각을 대신하는 쏨 반 두렌은 동식물의 고통과 멸종을 단일 종의 소멸보다 넓은 관계의 해체 과정을 ‘느린 재난’이라는 표현으로 내 가슴을 두들겼다. ‘느린 재난“인간과 비인간의 삶은 함께 손상되며, 생태감정은 그 연결을 알아차리고 응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글렌 알브레히트의 ‘솔라스탤지어’solastalgia는 자신이 살던 장소에 여전히 머물면서도, 환경의 변형으로 위안과 소속감을 잃는 고통을 뜻한다. 고향을 떠나 느끼는 노스탤지어와 달리, 익숙한 장소 자체가 낯설어지는 경험에 초점을 둔다. 가뭄·산불·홍수뿐 아니라 채굴·개발·젠트리피케이션 등도 이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는 도시의 변화 속에서 사람·동물·환경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를 모색하고, 장소 상실의 정서가 비인간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캐런 버라드의 유령적 존재론과 회절적 기억,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생태감정의 윤리적 가능성을 회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기억은 사라진 세계를 과거의 모습으로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작용하는 상실의 흔적과 배제된 관계를 드러내고 재구성하는 실천이다. 연구의 과제는 솔라스탤지어가 보여주는 시간성과 다종적 관계성을 밝히고, 상실의 감정을 인간과 비인간의 삶에 응답하며 공동의 생존 조건을 돌보는 실천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7. 비판적 신유물론과 생태적 책임

나는 버틀러Judith Butler의 구성적 외부 개념에서 출발하여 계급사회의 배제 구조를 비판하고, 버라드Karen Burad의 행위적 경계짓기agential cut 를 통해 그 구조의 재구성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체화의 관계를 상보적 관계로 전환하는 일을 비판적 신유물론의 과제로 제안한다. 여기서 상보성은 기존의 지배와 종속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배제된 존재들이 관계의 형성과 변경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을 지탱할 조건을 함께 구성하는 비지배적 관계를 뜻한다. 나는 이를 비지배적 상보성non-dominating complementarity이라고 표현한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로서의 비체abject는 어떤 질서가 자신을 확립하면서 배제하는 존재와 영역을 드러낸다. 이 관점을 계급사회에 적용하면, 계급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층이나 개인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계급은 소유와 노동, 제도와 인정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언제나 늘 재배치될 수 있다. 권력계급과 비체화된 존재의 위치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특히 권력층은 자신이 주변으로 밀어낸 사람들의 노동과 돌봄에 의존하면서도, 그들을 동등한 참여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권력을 가진 계층은 배제된 존재의 활동을 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타자를 배제하지만 늘 곁에 두려한다.

이 점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면 비체화된 존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어진 자리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자신을 배제하면서 이용하는 구성된 관계에 대한 저항이다.

저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살펴야 한다. 버라드의 행위적 경계짓기 개념은 이를 분석하는 자원이 된다. 다만 계급 간 구분을 행위적 절단agential cut과 곧바로 동일시하기보다, 제도와 언어, 공간과 자원의 배치가 어떤 경계를 실제로 만들어내는지 묻는 데 이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계급의 경계는 법적 구분이나 명시적인 명령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관행과 평가 기준, 시설의 배치와 접근 조건을 통해서도 실행된다.

오늘날 계급 간 경계가 흐리게 보인다는 사실은 계급이 사라졌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계를 만드는 과정이 은폐될수록 사람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이기 쉽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주민 사이의 위계, 청년과 노장년 사이의 차등적 대우, 성별에 따른 노골적인 차별, 교수직과 강사직 사이의 심각한 불균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 사례들을 하나의 동일한 계급관계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차이가 자원과 인정의 격차로 고착된다는 점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지워야 할 것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열등함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근거로 만드는 위계적 경계이다.

그렇다면 저항의 목표는 경계가 전혀 없는 상태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공동의 삶에는 구분과 결정이 필요하며, 모든 실천은 어떤 가능성을 열면서 다른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비체화하는 일을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은폐된 경계짓기를 드러내고, 누가 경계를 정하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묻는 일이다. 비체화의 잠재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더라도, 그 효과에 응답하면서 경계를 수정하여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만의 영토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성적 외부의 자리에 고정된 존재들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생태적 유물론의 과제가 된다. 상보적 관계는 배제된 존재를 기존 질서의 빈자리를 채우는 수단으로 편입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그것은 관계의 규칙과 자원의 배분, 결정의 권한을 함께 바꾸는 과정이다. 타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데 더해, 그 타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문제 삼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적 책임도 이러한 관계의 재구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책임을 관계 바깥에 서 있는 개인이 규범적으로 떠맡는 의무에 한정하면, 불평등을 생산하는 배치를 충분히 바꾸기 어렵다. 책임에는 환경세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감은 타자의 경험을 내 경험과 동일시하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삶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필요와 손상에 응답하려는 감각적·실천적 태도이다.

따라서 생태적 책임은 자신을 구성하는 관계가 어떤 삶과 활동을 유인하고 가능하게 하며, 무엇을 배제하고 침묵시키는지 살피는 일이다. 나아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일방적으로 실행해 온 경계짓기를 재배치하고, 그 변경의 효과에도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일이다.

비판적 신유물론은 얽힘과 상호의존성을 서술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관계 안의 지배와 배제를 드러내고, 비체화된 존재들이 공동의 삶을 구성하는 상보적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비판과 실천이어야 한다.

나의 이야기 : 7절 요약

1) 버틀러 Judith Butler의 구성적 외부 개념에서 출발
① 구성적 외부로서 비체abject는 배제와 소외를 수반한다.
② 계급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다.
③ 권력계급과 비체는 결정된 층이 아니다.
④ 계층화에서 권력층은 비체를 필요로 한다.
⑤ 순응된 비체가 아니라, 비체는 저항해야 한다.

2) Karen Barad의 행위적 경계짓기agential cut
① 존치된 계급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고 경계에 저항한다.
② 그런데 계급 간 경계가 흐리다. 보이지 않는 계급에 쉽게 적응해 버린다.
③ 계급은 없어지지 않았다.
④ 계급 간 경계긋기(Barad의 “cut”)가 은폐되었을 뿐이다.
⑤ 정상과 비정상,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그어진 차별에서부터 (우리 현실의 삶에서 드러난 사례로서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아파트 주민들, 청년과 노장년, 성차, 교수직과 강사직 등등, 그들 사이에 차별적으로 그어진 고착된 경계를 지워야 한다.

3) 비체abject를 상보성으로 전환, 그리고 생태적 책임
① 비체를 피할 수 없다면 은폐된 경계를 드러내서 경계긋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② 책임은 관계 바깥에 서있는 개인이 규범적으로 떠맡는 의무에 그쳐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책임은 환경세계에 대한 공감의 문제다.
③ 자신을 구성하는 관계가 무엇을 유인하고 무엇을 배제하는지의 지들

맘대로 하는 경계짓기를 재배치하는 응답 과정이 생태적 책임의 주요 내용이다.

4) 제안과 과제

생태적 유물론 : 권력에 의해 구성된 주체와 그 구성적 외부를 배제하는 경계짓기에 순응하지 않으며, 은폐되어진 삶의 영토들을 드러내어 생태적 니치(niche)로 재배치한다.

실험적 형이상학 : 서로 다른 존재들이 차이를 보전하면서도 관계맺어진 비지배적 상보성non-dominating complementarity의 존재론 즉 존재-인식-윤리(실천)의 합생合生 존재론을 지향한다.